

다산포럼



황상익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면허증을 받고 '의사'가 된다. 그리고는 곧 바로 개업을 하거나 병원에 취업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은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다. 대개 인턴 1년과 레지던트 4년 과정을 거쳐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전문의 제도가 실시된 것은 구미 국가들보다 훨씬 늦은 1958년부터인데 지금은 전문의 비율이 80% 가량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또 전국 265개의 수련 병원 등지에서 일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모두 합해 1만8000명 정도 된다. 다시 말해 10만 여명의 의사 거의 모두가 전문의 아니면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공의인 것이다.

NGO 칼럼



김재훈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최근 아동이 사망하는 학대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한국 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뜨겁다. 실제로 전국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아동학대 대한 이해와 인식이 변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학대행위의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가 아직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를 잘 구분짓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학대의 정의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특정 사안이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분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기고



신용석
국립공원연구원장·자연환경관리기술사

무등산은 지난 1년간 60여명의 전문가가 수행한 자연자원 조사결과에 의해 국립공원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면적과 여건의 국립공원으로 10년마다 3회 조사한 북한산(3790종), 계룡산(4306종)과 비슷한 때 무등산은 불과 1회 조사로 3668종이 확인되었으니,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무등산을 보전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과 이용으로 얻은 혜택을

수면 부족과 피곤에 사로잡힌 전공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일하는 20대 중후반 내지 30대 초반의 '젊은 의사'들이 대부분 전공의인데, 이들은 국가에서 인정 한 면허를 가진 '온전한' 의사이면서 수련을 받는 피교육생 신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들이 병원에서 일하는 것은 노동으로 취급되지 않고 '수련'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의료법'과 그 하위법령인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올해 들어 작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이전까지는 없던 주간(週間) 상한시간의 상한(上限),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 등이 규정(제12조)에 새로 들어갔다. 그 동안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 '규제는 할 당어려, 처벌쉬워 할 원수'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가? '1주당 80시간 초과 수련 금지, 연속 36시간 초과 수련 금지, 응급실 수련 시 최대 12시간 근무 후 12시간 휴식, 당직은 최대 주 3일, 휴일은 1주당 최소 1일, 연간 14일 휴일 보장 등이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전공의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1주당 80시간 초과 금지"이며 하루에 일하는 시간에 대한 것은 여전히 없다. 이전까지 없던 규제 조항이 생겼지만 일반 노동자들에 적용되는 기준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개선되어서 1주당 80시간이라면 도대체 우리나라 전공의들은 한 주일에, 또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해 온 것인가? 병원을 이용해온 사람이라면 피곤에 찌들고 수면 부족으로 멍한 상태의 전공의들을 대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1주일에 100시간이나 그 이상, 하루 24시간 근무는 비일비재하다.

세상에 쉬운 노동이 없었지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살피는 일도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신체적으로도 고되고 정신적인 긴장도 어떤 노동보다 가깝지 않다.

우리나라만 전공의 업무를 일반 노동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골잡 모범으로 삼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전공의의 근무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다 일찍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른 중요한 선구가 '리비 시온 법(Libby Zion Law)'의 제정이다.

1984년 3월 4일 밤, 독감으로 '뉴욕 병원'에 입원한 베네티 대학 1학년 여학생 리비

시온은 다음날 아침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호지부지 끝날 수도 있었던 이 사고는 법률가이면서 뉴욕타임즈의 필진인 아버지 시드니 시온의 끈질긴 노력으로 의료실임이 밝혀졌다. 담당 전공의의 부주의로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될 약을 투약한 결과였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과로가 빚어낸 인재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재판 그리고 별도의 청문회를 통해 전공의들의 험련없는 근무조건이 알려졌다. 1주일에 무려 136시간(하루에 20시간 꼴)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노예노동보다 더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의료사고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넓혀갔고 마침내 1989년 1주일 80시간 이내 근무, 24시간 연속 근무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리비 시온 법(뉴욕주 보건규정 405)이 제정되었다. 이후 다른 주들에서도 비슷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전공의 근무조건에 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된 것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앞으로 더욱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의료계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1차적으로 전공의들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 우리 자신의 건강,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수면 부족과 피곤에 쫓기는 의사에게서 최선의 진료를 기대할 수 있었는가?

아동학대, 주변의 관심과 신고만이 막을 수 있다

최근 3년간 광주지역의 아동학대 유형중 방임이 학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학대 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전체 학대사례의 27%, 2012년 21%, 2013년 31%를 차지하고 있다. 방임은 아이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물리적 방임과,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고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교육적 방임, 적절한 치료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으로 나뉘는데, 전국적으로도 방임사례는 증가추세에 있다. 한국과 외국의 방임 관련 규정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방임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에 비해 미국은 '13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1시간 있는 것은 방임'이라고 규정하거나, 영국의 경우도 '13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홀로 등교하는 것은 방임'이라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한국의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범위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요즘과 같이 한부모가정과 빈곤가정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방치하는 '생계형 방임'이 늘고 있으며 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가 없는지 아웃과 교육기관, 복지관련 기관들의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앞서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라는 점은 자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르치는 훈육과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는 사고를 가진 어른들이 많은데, 체벌로부터 시작된 훈육은 아이에 대한 신체학대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고, 훈육의 과정에서 아이에게 감정을 개입시키는 것은 학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도가 필요한 어른의 부속품으로 여겨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은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부모라면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갖게 되는 아이에 대한 기대가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녀양육을 개인적인 가정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건강한 사회인으로 키우는 '기'로 다르게 생각해보는다면 아이에게 느껴지는 화의 감정이나 갈등관계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강력 아동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올 9월부터 시행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

되어 기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앞으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서 더 나아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미신고시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조정되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말하는데, 교사 직군, 의료인 직군,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이 이에 속한다. 특히 교사 직군에는 학원 및 급습소 종사자 또한 신고의무자에 속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의 일로만 여겨거나 훈육의 차원으로만 여겨서는 안되며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되어야 한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광주지역의 아동학대에방을 위해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권리인식교육과 학대에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옹호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만이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으며 아동학대와 관련된 상담·신고전화번호는 1577-1391이다.

국립공원 무등산의 품격을 높이자

한산한 금액을 토대로 산정한 경제적 가치는 5조8000억원에 이르렀는데, 이는 국내 산악 국립공원 중 5위에 해당된다. 이는 무등산에 대한 광주·전남 시민들의 남다른 애정과 도시에 인접한 희소성, 그리고 국립공원 중 2위에 해당하는 5백만 명에 가까운 방문객수를 반영한 높은 자산(資産)가치다.

그러나 생물종수가 많다고 또는 방문객이 많다고 명산이라 할 수는 없다. 더구나 무등산의 안(과도한 인공시설)과 밖(복잡한 경계선)을 보면 국립공원의 품격과는 거리가 있다. 면적에 비해 과도한 탐방로와 셋길은 생물종들을 더욱 좁은 영역으로 고립시키고 있고, 주요 봉우리에 설치된 군사시설 및 중계탑과 도로는 무등산의 신성한 경관에 비수를 찌는 듯 하며, 이해관계 때문에 들쭉날쭉 설정한 공원경계는 국립공원 보호기능을 크게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심사-장물체에 집중된 탐방집중 현상(66%)을 확산-담양지역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부채살처럼 퍼져나간 정구탐방로를 축소하고 셋길은 폐쇄하여야 하며, 무등산 둘레를 잇는 순환 대중교통을 운영하여 탐방객 분산여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산 정상부의 인공시설 철거이전은 쉽지 않은 사안이지만, 환경안보시대에 서 국가의 경제력을 이룬 분야에 사용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이런 고산지역의 복원과 더불어 인공조립지는 자연림으로 유도하여 무등산의 독특한 원형을 되찾아야 한다.

셋째, 기다란 톨니처럼 생긴 공원경계는 하루빨리 부드러운 곡선형태로 이어져야 한다. 현재의 자연공원법은 가급적 기존의 토지이용을 존중하고 있으며, 명품마을과 같이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공원관리가 시행되고 있다.

넷째, 무등산 살리기 시민운동의 전개이다. 국립공원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과 불

편을 감수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셋길은 가지 말자는 약속, 정상보다는 자락을, 빨리(등산)보다는 천천히(관람) 등을 통해서 무등산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배려가 결국 시민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올 것이다.

끝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광주시의 공동관리체제를 빨리 끝내야 한다. 이를테면, 중머리재에서 응유계곡 방향으로 같은 장소에 2개의 이정표가 있는데, 두 기관의 이정표 거리가 서로 다르다. 국립공원 생태계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이용 역시 수준 높은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10년의 공원관리는 무등산의 원형을 복원하는 순례길이 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포용길이 되어야 하며, 이는 시민의식의 성숙을 통해 앞당겨질 것으로 믿는다. 모든 불평등과 부조화를 넘어 평등과 평화를 일구어내는 것이 무등산국립공원의 이름 뜻 아닌가.

社說

‘골든타임’ 43분 날려 인명피해 더 키웠다

침몰한 세월호 여객선 선장과 승무원들이 승객을 빨리 탈출시키라는 진도연 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건 채 급속같은 31분을 허둥대다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승무원들이 진도VTS와 교신에 앞서 거리가 먼 제주관제센터와 침몰 상황을 주고 받아 인명 구조에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 12분을 허공에 날려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법정부사고대책본부가 20일 공개한 침몰 당시 세월호와 진도VTS간 교신 녹취록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16일 오전 9시7분 세월호가 진도VTS와 첫 교신을 한 뒤, 9시38분까지 27차례 교신했다고 한다.

배가 침몰 중이라는 세월호의 보고를 받은 진도VTS는 승객에 대한 구명뿔의 착용과 탈출을 지시했지만 세월호는 “승객들을 탈출시키면 구조가 바로 되겠느냐.”는 질문만 반복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진도VTS는 교신 16분 후 긴급

히 탈출을 지시했지만 세월호에선 배가 이미 기울어진 상태에서도 구조 여부만 묻다가 결국 31분을 허비했다.

앞서 세월호 승무원들은 오전 8시55분 해경이 관장하는 진도VTS보다 거리가 먼 해양수산부 관할의 제주VTS에 위급 상황을 통보했다. 이에 제주VTS는 진도VTS로 상황을 전달해 구조가 가능했던 12분을 날린 셈이다. 그럼에도 제자리를 지켜야 할 선장 등은 자신들만 살겠다고 탈출했다.

탈출 호기였던 시간대를 그냥 내버린 무감각과 무책임이 대참사를 키운 것이다. 불의의 사고 아니라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는 직무유기 그 자체라 아니할 수 없다. 43분간 신속하고 침착하게 구조에 나섰다면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해경 측에도 묻고 싶다. 왜 더 단호하게 승객들을 전원 탈출시키고 선장이 다시 보고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는가. 녹취록을 나와 이상 쉬쉬했는지 뒤따르는 의문이다.

선박 노후·결함기 점검, 불안한 전남 뱃길

전남 해역을 운항하는 뱃길이 불안하다. 낡은 여객선이 많고, 안전관리마저 허술해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또 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은 유·무인도가 2219개로 전국의 62%를 차지하고 섬 주민도 21만 명에 이른다. 때문에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도 빈번한 가운데 전체 연안 항로의 절반에 해당하는 55개 노선이 전남지역에 몰려 있다.

그러나 노후 선박이 많아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목포~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은 선령이 20년이나 되고 녹동~제주, 장흥~제주노선에 투입된 선박들도 낡아 안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여수지역 섬을 오가는 차도선 상당수가 1990년대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나 위험물기는 마찬가지다. 이번엔 침몰한 세월호 역시 일본에서 건조된 지 20년이 지났고 한 차례 개조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처럼 선박 노후로 사고 위험이 상존

하고 있지만 선사는 교체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당국의 안전점검마저 허술해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또 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만 봐도 선박 노후는 물론 승무원 교육이나 매뉴얼 준수 등 무엇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 결국 '인재'(人災)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뼈저린 자책을 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후 선박 개량 등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안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을 적극 해소해야 한다. 특히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철저한 안전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無等鼓

수년 전 신안군 흑산도와 가거도를 잇는 항로에 위치한 하태도에 취재를 다녀온 적이 있다. 당초 1박2일 일정이었지만 이른날 풍랑주의보가 발령되며 여객선이 오지 않아 꼼짝없이 섬 안에 발이 묶이고 말았다.

결국 일행은 나흘째 되는 날 흑산도로 나가는 작은 어선에 편승했다. 선실 내에 앉아서 바라본 바깥 풍경은 아찔했다. 주변은 넘실대는 커다란 파도뿐이어서 그야말로 망망대해에 떠있는 작은 나뭇잎 같은 '일엽편주'(一葉片舟)가 연상되는 상황이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수십 년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선장을 믿은 결과 몇 시간 후 멀미도 없이 무사히 물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바다는 항상 굼주린 채 먹이를 찾는, 커다란 이를 가진 끔찍한 괴물이다. 어느 날엔 미소짓는 요부와도 같지만, 다음날이면 무서운 괴물로 변한다." 이 말을 남긴 토머스 P.H. 화이트로(1847~1932)는 19세기 말~20세기 초 당대 최고의 해난 구조업자로 불렸던 인물이다. 그는 법선과 증기선이 주류를 이루던 당시에 평생동안 289척의 난

파선을 인양했다고 한다.

그는 21살 때 잠수복을 입고 바다에 내려가 침몰한 배를 수리하고 인양을 도우며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던 품삯을 받았다. 하지만 250달러의 보너스를 받은 '난파선 구조업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는 자신의 해난구조 철학에 대해 "바다는 종교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사막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필생의 사업에는 그의 피와 맥박이 스며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 일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가 난지 7일째

해난 구조

가 왔다. 온 국민의 시선이 진도 구조현장에 쏠려 있다. 실종 학생들의 부모뿐만 아니라 온 국민 모두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기적'을 바라고 있다. 민·관 구조원들이 겨우 조류와 싸워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사고현장에 원격조종 무인 잠수정(ROV)과 '머구리'로 불리는 잠수기수습 소속 잠수사까지 투입됐다. '일분 일초가 아까운' 이때에 우리나라의 해난구조 역량을 모두 집중해 '기적'을 일구기를 간절히 바란다. /송기웅 사회2부장 song@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 F A X 222-8005>	< F A X 222-0195>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마케팅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